

광주 김치축제 폐지... 서울에 브랜드 뺏길 판

내년 예산 15억 전액 삭감으로 축제 포기 1994년 첫 개최 20년만에... 김치 종사자 반발

20년 넘게 전 세계 김치를 대표하는 축제의 명성을 이어온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이하 김치축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시의회에서 내년도 김치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김치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치축제는 음식 콘테스트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있을 정도로 전통과 권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 포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첫 서울김장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3대 축제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힘에 따라 자칫 광주의 김치축제가 서울 김장축제로 흡수 통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김치축제 예산 15억5100만원이 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신 김치산업육성을 위한 행사비로 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김치(축제) 관련 업무도 관광진흥과에서 생명농업과로 이전됐다. 지난 1994년 첫 개최돼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김치를 주제로 한 대표 축제지만, 행사 위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회성 행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그동안 160억원이 넘는 예산 투입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지역유망축제에서도 탈락하면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도 22회 김치축제부터는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난 새로운

축제로 거듭나겠다고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반영을 요청했지만 결국 전액 삭감됐다. 김치축제가 사실상 퇴출당하면서 지난 20여년간 독점해온 김치축제라는 명칭도 서울시에서 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치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도 김치 관련 축제를 세계 3대 축제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3월 광주시에서 서울 김치축제 개최의사를 타진했다가 거절당한 뒤 민선 6기 들어 광주-서울간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는 틈을 타 '김장문화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최 승낙을 받아냈으며, 지난달 첫 행사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애초 축제 명칭에 김치라는 단어를 포함하려 했으나 광주시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광주시가 김치축제를 포기할 경우에는 '김치'를 축제명칭으로 사용할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관광진흥과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축제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말 것을 요구한 만큼 내년부터는 김치축제라는 명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첫 김치 관련 (김장)축제를 개최한 서울시와도 협상을 통해 '김치'라는 명칭만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막을 명분도 없게 됐다. 현 상태라면 서울시에서 김치축제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년 김치명인을 배출해온 광주지역 김치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광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김치명인은 "음식 행사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배출할 정도로 권위를 갖춘 축제를 갑자기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함께해요 자원봉사” 9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나눔 2014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축제’에 참석한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시군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요 자원봉사’라고 쓰인 손필침막을 들고 포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남해안철도 고속화사업 조속히 재개하라” ‘복지 시스템 개편’ 대상에 곡성군

<목포~보성>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용재 위원장(광양·사진)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회가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한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남해안철도 고속화는 국토 서남권인 목포와 동남권인 부산을 연결해 동서화합과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 등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영·호남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고속화사업은 지난 2007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지된 후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했다. 이용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남해안철도 전체 예산 규모는 1조3000억원이 넘으며, 올해 전남도가 당초 요청한 1500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반영됐다”며 “전남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제 때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곡성군이 대상, 광주 광산구와 순천

시, 영암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은 받은 곡성군은 마을 이장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돌볼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고 교육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전달 체계 개편 모델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한승원 칼럼

“우리창에 등을 비비대며/ 거리를 미끄러져가는 노란 안개에도/ 확실한 시간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만날 얼굴들을 대하기 위하여 한 얼굴을 꾸미는데도 시간은 있으리라, 시간은 있으리라/ 살해와 창조에도 시간은 있으리라.”

앞이 잘 내다보이지 않고 마음이 산란할 때, 나는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이며 평론가인 T.S 엘리엇의 시 ‘J.S 푸르프록의 연가’의 한 구절을 즐겨 암송하곤 한다.

며칠 전, 아침나절에 마을의 제조제를 즐겨 사용한 한 노인이 혈액암으로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난 오후, 운동복을 입고 바닷가로 산책을 하면서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탄력적인 반응이다.

11월 달력을 뜯어내면서 느낀 세월, 덧없음의 우울함이 가지지 않은 12월 2일 저녁, 후배 소설가들과 송년회를 치르기 위하여 올라탄 광주행의 버스 안에서 초혼(招魂)된 낯처럼 내린 첫눈이 소담스럽게 쌓인 소나무 숲을 차

침몰되고, 그 속에 타고 있던 3백 몇 십 명의 승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TV 중계를 통해 바라본 슬픈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먼 얼음바다에서 명태잡이 원양어선 오룡호가 침몰 되었고 50여 명의 선원들이 수장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세월호가 20년 넘은 낡은 배였다는데, 오룡호는 35년 된 낡은 배라고 한다. 우리는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완벽하게 고치기도 전에 또 소를 잃었다.

시간은 인간에게 늘 살아날 기회를 주는 자산이지만 외양간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는 것들을 사정없이 되출시키는 잔혹한 것이다. 우리는 왜 외양간을 제대로 손질하는 현재(시간)를 가지지 못했는가.

광주는 빗다미 위에 있는 지하철 1호선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순간을 영원처럼 살고 영원을 순간처럼 살아야 한다. 영원이란 것은 한 순간 한 순간의 집적의 결과물이니까, 신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다

창 밖으로 내다보며,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라고 중얼거렸다.

소설가 이삼교 형과 원각사 불일서점에서 회동하여, 내 도굴 처마 끝에 달아있던 좋은 풍경(風景) 두 개를 사서 가방에 넣었다. 지하철을 타려고, 움직이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가 한 여자가 옷가게에 옷들을 매혹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림은 ‘나와 우리’가 시간적인 존재라는 자각이다. 시간적인 존재란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갖춘 것을 말한다. 만일 과거와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래가 없는 것은 멀지 않아 소멸될 존재인 것이다.

시간이란 자산은 인간에게 주어진 신의 위대한 선물이지만 그것은 잔인한 것이다. ‘시간’이란 것은 ‘신(神)’과 ‘진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신과 진리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미래 없는 것을 사정없이 소멸시킨다.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있을 지하철 2호선을 만드는 시간과, 허술한 외양간을 고치는 시간을 주었나.

우리들을 둘러싼 우주적인 풍경은 바야흐로 압도적한데, 국제적, 국내적인 풍경은 구역질이 날만큼 어수선하다. 구역질나는 풍경을 만드는 것은 권력인데, 그것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볼 때 한시적인 것이다.

외양간을 고칠 시간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 시간을 게으르지 않게 활용해야 한다.

처마 끝에 단 풍경소리를 들으면서 이 글을 쓴다. 컴퓨터를 끈 다음에는 보건체조를 하고, 아침밥을 먹으러 가면서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 은행에 들러 가난한 통장에 들어온 원고료와 인쇄 몇 푼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부정맥 약, 천식 기침 감기약, 항 알레르기 약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거듭 중얼거릴 것이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소설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e-NIE로 토론하고 소통해 봐요~ 수업이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학생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향상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 개발, 진로·적성 교육
자유학기제 시행 취지에 딱 맞는 **디지털신문활용교육, e-NIE!**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e-NIE를 지원합니다.

- 자유학기제에 최적화된 교육 시스템
- 교과목별 진도별 다양한 수업지도안과 활동지 제공
-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지금 홈페이지에서 체험해 보세요
<http://forme.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제작팀
02-2001-7792-6, news@kpf.or.kr